

류현진 완봉승... 153km 돌직구 '핵타선' 잠재우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류현진이 29일(한국시간)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의 홈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후 11경기만에 첫 완봉승과 함께 시즌 6승을 올린 후 포수 A.J. 엘리스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LA 에인절스 19타자 연속 범타... 팀내 최다 '6승'

무4사구 2피안타 7K 완벽투

매팅리 감독 "마운드의 예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투수 류현진(26)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이후 처음으로 무사구 완봉승을 거두며 시즌 6승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지역 맞수'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의 홈 경기에서 9회까지 혼자 던지면서 4사구 하나없이 2안타만 내주고 삼진 7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상대 강타선을 틀어막았다.

다저스는 류현진의 완벽투를 발판삼아 루이스 크루스의 5회 무사 1루에서 왼쪽 펜스를 넘기는 2점 홈런에 힘입어 3-0으로 이겼다.

이로써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후 첫 완봉승과 함께 시즌 6승(2패)째를 거뒀다. 메이저리그에서 완봉승을 거둔 한국인 투수는 박찬호(은퇴), 김선우(현 두산)에 이어 류현진이 세 번째이다.

이날 승리로 류현진은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5승3패)를 제치고 팀내 최다승 투수로도 올라섰다.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은 3.30에서 2점대인 2.89로 낮아졌다. 류현진은 3회 말 타석에서 우익수 키를 넘겨 원바운드로 펜스를 맞추는 시즌 두 번째 2루타를 때리며 3타수 1안타를 기록, 타율이 0.238에서 0.250으로 높아졌다.

올해 신인 투수 중 승수·탈삼진(67개)·투구이닝(71.2이닝)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신인 선수상 경쟁에서도 앞서나갔다.

류현진은 이날 113개의 공을 던졌으며 이중 79개가 스트라이크였다. 특히 직구 최고 구속이 데뷔후 가장 빠른 시속 95마일(153km)에 이르렀을 정도로 우타자의 바깥쪽에 꽂히는 빠른 공이 위력적이었다.

스포츠 전문채널인 ESPN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이날 경기에서 류현진은 올

류현진 이닝별 투구내용 및 경기결과

LA 에인절스	1회	2	3	4	5	6	7	8	9	득점	안타	삼진
에인절스	0	0	0	0	0	0	0	0	0	0	2	0
다저스	0	0	0	0	2	1	0	0	0	3	7	0

시즌 7패, 평균자책점 6.19로 부진한 우안 조 블랜턴과 맞대결했다.

류현진이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 타선을 제물로 빅리그 첫 완봉승을 수확한 원동력은 살아난 직구 위력에 있다.

주전포수 A.J. 엘리스와 호흡을 맞춘 류현진은 초반부터 오른손 타자 바깥쪽에 꽂는 속구로 타자와의 볼 카운트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 최고 95마일(시속 153km)까지 나온 그의 직구는 9회까지도 비슷한 속도를 유지했다.

마지막 타자 마이크 트라우트를 2루 땅볼로 잡아 완봉승을 장식할 때 던진 마지막 공이 151km를 찍을 정도로 힘이 넘쳤다. 구속도 좋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하게 찌르는 제구가 일품이었다.

때때로 포수 미트에서 멀리 벗어날 정도로 들쭉날쭉하던 바깥쪽 직구 제구를 이날 낮게 잡은 류현진은 공격적인 투구로 '천사' 타선을 압박했다. 이날 경기를 포함해 두 달간 11차례 선발 등판하면서 오른손 타자 몸쪽보다 바깥쪽에 후한 메이저리그의 스트라이크 존에 완벽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풀 카운트 집전도 세 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투구수를 확 줄이면서 메이저리그 첫 완봉승의 기쁨을 마셨다.

4회까지 57개를 던진 류현진은 5회 11개, 6회 8개, 7회 7개만 던지고 이닝을 마쳤다.

심하면 한 이닝에 20개를 넘게 던지기도 한 그는 5회부터 7회까지 3이닝 동안 26개의 공만 뿌려 완봉 달성에 성공 다가갔다.

3할의 타율과 두자릿수 홈런을 터뜨리며

최근 팀의 8연승을 이끈 트라우트, 마크 트랍보 두 타자를 각각 4타수 무안타, 3타수 무안타로 요리하며 홈루를 막은 것이 승인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에인절스 타선은 초구부터 과감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관통하는 류현진의 직구를 노렸으나 힘에서 눌려 땅볼과 외야 힘없는 뜬공으로 잡혔다.

류현진은 땅볼 12개, 뜬공 3개로 에인절스 타자를 손쉽게 요리하며 맞아 잡는데도 뛰어난 능력을 뽐냈다.

컨트롤과 힘을 겸비한 직구로 에인절스 타자들의 방망이를 묶은 류현진은 후반에 접어들어 전매특허인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를 던져 탈삼진 숫자를 늘려갔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가라앉는 체인지업의 각도도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 직구와 필살기로 손색이 없었다. 6회 전매특허인 체인지업으로 두 명의 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8회에는 선두 후위 캔들릭을 체인지업으로 삼진 처리한 뒤 후속 두 타자를 슬라이더, 체인지업으로 땅볼 처리하며 폐재를 불렀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첫 완봉승을 따낸 류현진은 "이렇게 이른 시일내에 완봉승을 할 줄은 몰랐다. 앞으로 나올 때마다 무실점 경기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에게 특별한 날"이라면서 "체인지업을 비롯해 변화구도 좋고 볼 빠르기도 좋아지고 있다. 9회에도 여전히 강속구를 뿌리면서 제구력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칭찬했다.

/연합뉴스

'대도 군단' KIA, 200도루 "GO"



43경기 54개...초반 기세 '주춤'

김주찬 복귀 땀 기동력 재점화

'호랑이 군단'이 200도루를 향해 스피드를 낸다.

KIA 타이거즈는 해태시절부터 김일권-이순철-이종범 등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대도'를 배출하며 기동력의 팀으로 이름을 날렸다.

1만6000타점·3200홈런·팀 2000승 등 타이틀은 삼성이 먼저 가져갔지만 도루 타이틀은 KIA가 1위 자리를 놓지 않고 있다. 지난 4월19일에는 이용규의 발이 프로야구 첫 팀 3800도루를 완성시켰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 선동열 감독은 '200도루'를 목표로 내걸었다. 기동력으로 상대를 흔들며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었다. 2012시즌 도루왕 이용규와 함께 김선빈·안치홍·김원섭 등의 발 빠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주력이 돋보이는 김주찬까지 팀 일원이 되면서 기동력을 새로운 전력으로 꼽은 것이었다.

초반에는 '200도루 작전'이 통하는 것 같았다. 역시 김주찬이 기동력의 중심이었다. KIA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선 3월 30일 첫 타석에서 볼넷을 끌라낸 김주찬은 바로 도루까지 성공시키며 남다른 발을 과시했다. 4월 3일 한화전 첫 타석에서 공에 맞은 뒤에는 손목이 골절된 상태에서 2루를 홈치기도 했다. 4경기에서 11차례 출루



이용규

한 김주찬은 5개의 도루를 남겼다.

이용규·김선빈·신종길·고영우는 물론 나지완까지 도루에 성공하면서 KIA는 개막 후 10경기에서 17개의 도루를 만들어내며 1위 행진을 했다.

하지만 김주찬이 화려한 질주를 뒤로 하고 재활에 들어갔고, 타격 부진으로 이용규와 안치홍의 출루율이 푹 떨어지면 KIA의 도루 페이스가 꺾였다.

43경기에서 기록한 팀 도루는 54개다. 두산이 66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롯데가 57개다. 도루 부문 20위권 안에 든 선수는 김선빈(16개), 이용규(11개), 신종길(8개) 등 3명. 김주찬(5개), 안치홍(4개), 고영우(2개)가 그 뒤에 있다.

KIA는 6월 기동력 재점화에 들어간다. 우선 기대주는 안치홍과 김원섭이다. 공수·주 삼박자를 갖춘 선수로 기대를 했던 안치홍과 김원섭은 길어진 타격 부진으로 공·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러나 최근 '공'에 힘이 실리면서 '주'에도 탄력이 생길 전망이다.

휴식기도 호재다. 휴식기를 만난 KIA는 28·29일 훈련 대신 휴식을 선택하며 체력 충전을 했다. 체력 소모가 많은 김선빈과 이용규에게는 특히 반가운 휴식이 됐다.

김주찬의 복귀는 200도루를 향한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김주찬은 29일 라이브 베팅을 하면서 6월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타격이지만 김주찬의 복귀 의사가 강하다. 주루와 수비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대주자와 대수비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김주찬의 각오다. 예상보다 김주찬의 합류가 빨라질 수도 있다.

휴식을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선 KIA가 기동력 재점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